

강준일의 해금협주곡 〈사월(思月)〉

이 미 경

1. 들어가는 말

작곡가 강준일에게 ‘전통’이란 삶 그 자체이다. 작곡가가 자신의 삶에 가장 솔직할 때 드러나는 그 어떤 것이다. 그에게 ‘전통’이란 ‘추구해야 할 이상’처럼 높은 곳에 두고 개념적으로 치장해야하는 어떤 관념적인 것이거나, 작가의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가 아니다. 나를 드러내는 순간에 함께 엉켜져 나오는, 아니 나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이다. 그의 표현대로, “충청도 사람이 충청도 사투리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과 꼭 같다. 그래서 그에게는 서양현대어법적 시기, 전통적 어법을 가미해 보는 시기, 그러다가 자신의 고유한 어법을 정착해가는 시기 등 흔히 서양음악과 전통음악의 양식 사이에서 그네를 타듯 건너다니는 창작시기 상의 구분이 없다. 첫 곡 <봄>에서부터 그의 음악은 ‘전통’적 정신을, ‘전통’적 소리를, ‘전통’적 음악 어법을 표현하고 있다.

‘전통’에 의지하고 있는 작곡가는 그만이 아니다. 그러나 전통을 이해하는 방식, 전통을 자신의 음악 안에 끌어들이는 방식은 작곡가마다 다르다. 윤이상의 작품에 들어 있는 한국적 전통과 강준일의 그것은 서로 다르다. 작곡가 강석희의 작품에서 조차 한국 음악적 전통을 느낄 수 있지만, 그의 작품과 강준일의 음악은 확연히 다르다. 무엇이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과 강준일의 작품을 구별 짓게 하는가? 그의 작품에서 전통이란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에서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1970년대, 그가 작곡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에는 사물놀

이와 결합된 여러 가지 편성의 작품들을 많이 작곡하였다. 그러다가 80년대와 90년대 초에는 주로 실내악 편성의 서양악기에 우리 소리와 정신을 담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우리 악기와 서양악기가 혼합 편성된 작품들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그는 우리적인 것의 본질, 전통음악의 정신을 표현하는 방식의 폭을 넓혀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음악의, 우리말의, 우리 생각의, 우리 습관의, 우리 정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주란 무엇이며,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가 놓여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궤적을 세상과는 담을 쌓고 전통만을 불들고 혼자 써 름하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의 작품에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실험들은 그 당시 우리 음악계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던 문제들에 대한 작곡가의 적극적인 응답이다. 박정희 정권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구습으로 규정하고 말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전통문화는 존폐의 위기를 맞았다. 이 위기에서 전통예술을 건져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소극장 ‘공간’이었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70년대 문화의 중심이었던 소극장 ‘공간’은 흩어져 있는 전통예술인들을 모아 우리의 전통예술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무대예술로 끌어올리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 ‘공간’을 통해 사물놀이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을 보였고 그것이 일으킨 들풍은 대단한 것이었다. 70년대 강준일의 작품들은 바로 이러한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 ‘사물놀이가 갖고 있는 폭발적 에너지가 작품이라는 틀 속에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작곡가로서의 답이었던 것이다. 이미 그 활약 이전부터 그는 전통음악의 명인들과 계속 만나면서 우리 음악의 정신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80년대 그는 서양악기로 이 체험을 표현해내기 시작한다. 이것은 80년대 부상되고 있던 ‘도대체 우리에게 민족음악란 무엇일까’에 대한 작가의 답이었다.

아마도 이 행운, 전통음악 명인들의 음악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다는 그 행운은 그에게 전통음악을 그 본질로부터 꿰뚫어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했을 것이다. 바로 이점이 전통음악의 표피적인 것들만 붙들고 새로운 것을 창작해 보겠다고 하는 여타의 다른 작곡가들과 그가 갖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 그는 우리 악기와 서양악기의 어울림에 몰두하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만약 전통 음악 연주자들의 창작음악연주에 대한 인식수준이 이전부터 높았다면 아마도 이 작업은 훨씬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른다.¹⁾ 그러나 이제는 우리 전통연주가들의 창작음악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창작음악 연주기량도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작곡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럴 때는 질적인 창작음악들이 쏟아져 나와서 연주자들의 기량을 높여주고 그것을 통해 다시 창작의 질이 향상되는, 그야말로 전통의 진정한 창조적 계승을 이루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2000년 이후 작품들이다.

바이올린과 가야금을 위한 <아우름>(2001)

첼로와 피아노 및 장고를 위한 <해맞이 굿>(2001)

소프라노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시가삼수(詩歌 : 首)>(2001)

첼로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韻影>(2003)

가야금과 현악사중주를 위한 <소금(素琴)곡>(2003)

소리와 해금 및 피아노 편성의 구음을 위한 <소리타래 III>(2003)

대금과 클라리넷, 첼로를 위한 <한거사락(閑居四樂)>(2004)

국악관현악과 해금,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소리그림자(韻影)> 2번(2004)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3곡 <소리 그늘에서>(2005)

해금 협주곡 <사월(思月)>(2005)

1) 물론 80년대에도 우리 악기와 서양악기의 결합을 시도한 작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88예술단 창단공연으로 기획된 작품 <새불>(1987)에서 그는 김영재 선생과 함께 작업하기도 하였고, 무용음악 <요석, 신라의 외출>(1988)에서 인성, 현악기, 피아노, 타악기와 함께 대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1998년도 국악합주를 위한 <소릿결>의 국립국악원 연주단의 연주에서도 작곡가는 국악연주, 특히 국악합주의 연주수준을 현실보다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작곡했노라고 필자 이희경과의 대담에서 밝힌 바 있다.

아마도 작곡가는 자신의 작품들이 겪어온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것 같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이런 곡을 쓰라고 해서 그래서 썼다고 우리 시대의 우리 음악이 겪었던 고민의 흔적이 그대로 그의 작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²⁾

2. 열린 구조와 닫힌 구조 사이의 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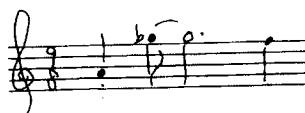
여기서는 가장 최근작인 해금협주곡 <사월>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의 제목, ‘사월(思月)’은 ‘달을 그리워함’을 뜻한다. 이 곡은 해금 연주자 정수년의 독주회를 위해 작곡되었고, 2005년 8월 31일 금호아트홀에서 정수년과 SMA 챔버 오케스트라에 의해 초연되었다.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분석할만한 것이 있을까?’였다. 곡의 흐름이 그냥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다. 혹은 때때로 해금과 서양현악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했다. 익숙한 음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낯설음은 곡을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금방 사라졌다. 그리고 서서히 이 곡이 갖고 있는 매력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먼저 이 곡의 시작부분을 살펴보겠다. 이 곡은 바이올린에 의한 다음의 동기로부터 시작한다.

2) 강준일의 작품을 연구함에 있어 가사가 붙은 음악에 대한 연구는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는 우리말에 음악을 붙이는 작업(가곡, 노래를 포함한 실내악에서 오페라에 이르기까지)을 쉬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나갔다. 1982년 <만가>에서 작곡가는 스스로 가사를 만들어 작곡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가곡모음 <마을의 노래 I & II>(1983)를 필두로 거의 매해 개최되는 ‘겨울나무’와 ‘바람소리(작곡가 김광순과 함께 여는 공동 창작가곡연주회)’ 연주회를 통해 새로운 가곡을 창작하였다. 2002년도에는 오페라 <백범 김구>를 창작하기도 한다. 가사가 붙은 음악에 대한 연구는 우리말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음조와 리듬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것은 그의 민족정신에 대한 이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악보 1) 1~2마디



그리고 이것은 해금으로 이어진다. 이 동기는 여러 가지 매력을 갖고 있다. 우선 이것은 우리 전통음악이 선율을 시작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전성과 길게 지속하면서 떨어지는 퇴성을 갖춘 ‘모양 혹은 ‘선율적 제스처’이다. 이것은 해금의 응답, 다시 제2성부 바이올린, 그리고 다시 해금으로 이어지는 동안 계속 반복된다. 중요한 것은 동기를 전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개의 서양 작곡가들이 많이 하듯이, 7도와 2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이해하고 7도와 2도를 뒤집기도 하고 (역행) 앞뒤를 바꾸기도 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음정관계로 이해하기 보다는 ‘모양’으로 보고 그와 유사한 선율적 모양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곡의 시작부분의 동기의 주고받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후자에 가깝다.

(악보 2) 1~9마디



그러면 이 곡은 이 동기를 ‘구조’로 이해하고 작곡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가? 9마디의 서양악기 부분을 보자. 먼저 비올라가 경쾌한 리듬으로 시작한다. 마치 장구 장단을 대신해주는 듯하다. 그런데 이 선율에서 리듬을 빼고 보면 첫 동기의 퇴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3) 바이올린의 시작동기와 10마디의 동기



여전히 이 동기는 퇴성의 느낌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10마디에 있는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떨어지는 음(제1. b음, 제2. g음, 비올라 b음)에 오게 되면, ‘어라, 이거 퇴성 맞아?’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여기가 이렇게 변하게 된 비밀은 해금 선율에 들어 있다. 해금 선율을 8마디 끝부분에서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4) 8마디 끝부터 15마디까지 해금 선율



즉 한 음은 퇴성이면서 동시에 다음을 열어주는 음이다. 퇴성인 듯, 마감하는 듯 하다가 다시 시작하고, 끝나는 듯 하다가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 뒤를 열어주는 것, 뒤로 이어지는 시간을 닫지 않고 열어나가는 기법은 이 작품이 곡을 전개시켜나가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보겠다. 악보 4의 해금 선율을 중요한 구조 음만을 명시하면 악보 5와 같은 달힌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15마디의 선율(악보 4 또는 악보 6 참조)은 이런 달힌 구조 뒤에서 이것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그 전부터 시작된 서양현악기의 선율을 타고 자연스럽게 들어오지만 이것의 역할은 뒤의 전개

를 위해 준비해 주는 것이다.

(악보 5) 8마디 끝부터 15마디까지 해금 선율의 구조음



이것은 이 작품의 ‘선형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형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각각의 선이 중요한 음악, 즉 ‘대위적 음악’이다. 서양의 선형적 음악의 대표적인 예는 푸가이겠지만 푸가는 처음에 너무 강력하게 주제를 선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주제가 소진할 때쯤에는 (더 이상 나타나면 지겨워질 때) 곡을 끝내야 한다. 그래서 아주 길게 쓰기는 매우 어렵다(베토벤의 <대 푸가> 같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서양음악이라도 그레고리안 성가의 선형성은 그와는 좀 다르다. 시작한 듯 안한 듯 평범하게 시작해서, 사실 가사만 아니라면 끝도 없이 이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긴 가락이다. 우리 음악의 선형성은 여기에 무척 가깝다. 뭔가 특별한 것 같지 않게 싱겁게 시작해서 계속 돌아오는 듯 보이지만 한 번도 같지는 않다. “봄은 봄이로되 그 봄은 아니로다”라는 말처럼. 작곡가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음악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 (내 음악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악이 단 하나의 선을 타고 계속 지나간다”고 서로 대립적인 두 주제 혹은 부분이 인위적으로 상정되고 그 사이를 메꾸어 가는 방식이 아니다. 아마도 소나타가 그와 같은 방식의 대표적인 것일 것이다. 소나타는 매우 역동적이다. 선형적인 음악은 역동적인 것과는 좀 다르다. 드라마틱한 대조나 격정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계속 밀려오는 파도 같은 것이다. 파도는 크고 작을 수 있다. 그러나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게 계속 밀려드는 것이고, 그 끝이 분명치 않으며 끝의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다. 예를 들면, 15마디에서 17마디의 부분은 해금의 선율로 볼 때는 지금까지의 선율을 마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혼악파트의 선율은 뒤의 전개를 향해 있다.

이 상승하는 현악파트 선율의 응답은 24마디의 해금 선율인 듯 보이지만 이 24마디의 해금선율 역시 18마디부터의 해금 선율에 대한 마감인 듯 보이다가도 곧 24마디 이후의 상승선율을 시작하는 선율이기도 하다(악보 6 참조). 이렇게 계속 마감하는 듯 하면서도 새로 상승하고, 또 마감하는 듯 새로 상승하는 기운은 38마디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안정을 찾게 된다.

(악보 6) 1~33마디

강 풍 일

그리움 $\downarrow = 54$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six staves. The top staff is for the Bassoon (Treble Clef). The bottom five staves are for the strings: Violin I, Violin II, Viola, Cello, and Double Bass. The score includes various dynamics (p, f, cresc. & decresc.), performance instructions ('그리움', '강 풍 일'), and specific note heads.

조금씩 빠르게

The continuation of the musical score follows the same structure as the previous page. It includes the same six staves and features dynamic changes and performance instructions such as '조금씩 빠르게' (gradually faster) and 'cresc. & decresc.' (crescendo and decrescendo).

12

해금

Vln. I

Vln. II

Vla.

Vc.

D.B.

p cresc. *poco ritard.* *ff*

cresc. *poco ritard.* *ff*

ff

13

Tempo I $\text{♩} = 54$

해금

puff (간절하게)

Vln. I

Vln. II

Vla.

Vc.

D.B.

pizz. *arco*

pizz. *arco*

pizz. *arco*

pizz. *arco*

铃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010
 10011
 10012
 10013
 10014
 10015
 10016
 10017
 10018
 10019
 10020
 10021
 10022
 10023
 10024
 10025
 10026
 10027
 10028
 10029
 10030
 10031
 10032
 10033
 10034
 10035
 10036
 10037
 10038
 10039
 10040
 10041
 10042
 10043
 10044
 10045
 10046
 10047
 10048
 10049
 10050
 10051
 10052
 10053
 10054
 10055
 10056
 10057
 10058
 10059
 10060
 10061
 10062
 10063
 10064
 10065
 10066
 10067
 10068
 10069
 10070
 10071
 10072
 10073
 10074
 10075
 10076
 10077
 10078
 10079
 10080
 10081
 10082
 10083
 10084
 10085
 10086
 10087
 10088
 10089
 10090
 10091
 10092
 10093
 10094
 10095
 10096
 10097
 10098
 10099
 100100
 100101
 100102
 100103
 100104
 100105
 100106
 100107
 100108
 100109
 100110
 100111
 100112
 100113
 100114
 100115
 100116
 100117
 100118
 100119
 100120
 100121
 100122
 100123
 100124
 100125
 100126
 100127
 100128
 100129
 100130
 100131
 100132
 100133
 100134
 100135
 100136
 100137
 100138
 100139
 100140
 100141
 100142
 100143
 100144
 100145
 100146
 100147
 100148
 100149
 100150
 100151
 100152
 100153
 100154
 100155
 100156
 100157
 100158
 100159
 100160
 100161
 100162
 100163
 100164
 100165
 100166
 100167
 100168
 100169
 100170
 100171
 100172
 100173
 100174
 100175
 100176
 100177
 100178
 100179
 100180
 100181
 100182
 100183
 100184
 100185
 100186
 100187
 100188
 100189
 100190
 100191
 100192
 100193
 100194
 100195
 100196
 100197
 100198
 100199
 100200
 100201
 100202
 100203
 100204
 100205
 100206
 100207
 100208
 100209
 100210
 100211
 100212
 100213
 100214
 100215
 100216
 100217
 100218
 100219
 100220
 100221
 100222
 100223
 100224
 100225
 100226
 100227
 100228
 100229
 100230
 100231
 100232
 100233
 100234
 100235
 100236
 100237
 100238
 100239
 100240
 100241
 100242
 100243
 100244
 100245
 100246
 100247
 100248
 100249
 100250
 100251
 100252
 100253
 100254
 100255
 100256
 100257
 100258
 100259
 100260
 100261
 100262
 100263
 100264
 100265
 100266
 100267
 100268
 100269
 100270
 100271
 100272
 100273
 100274
 100275
 100276
 100277
 100278
 100279
 100280
 100281
 100282
 100283
 100284
 100285
 100286
 100287
 100288
 100289
 100290
 100291
 100292
 100293
 100294
 100295
 100296
 100297
 100298
 100299
 100300
 100301
 100302
 100303
 100304
 100305
 100306
 100307
 100308
 100309
 100310
 100311
 100312
 100313
 100314
 100315
 100316
 100317
 100318
 100319
 100320
 100321
 100322
 100323
 100324
 100325
 100326
 100327
 100328
 100329
 100330
 100331
 100332
 100333
 100334
 100335
 100336
 100337
 100338
 100339
 100340
 100341
 100342
 100343
 100344
 100345
 100346
 100347
 100348
 100349
 100350
 100351
 100352
 100353
 100354
 100355
 100356
 100357
 100358
 100359
 100360
 100361
 100362
 100363
 100364
 100365
 100366
 100367
 100368
 100369
 100370
 100371
 100372
 100373
 100374
 100375
 100376
 100377
 100378
 100379
 100380
 100381
 100382
 100383
 100384
 100385
 100386
 100387
 100388
 100389
 100390
 100391
 100392
 100393
 100394
 100395
 100396
 100397
 100398
 100399
 100400
 100401
 100402
 100403
 100404
 100405
 100406
 100407
 100408
 100409
 100410
 100411
 100412
 100413
 100414
 100415
 100416
 100417
 100418
 100419
 100420
 100421
 100422
 100423
 100424
 100425
 100426
 100427
 100428
 100429
 100430
 100431
 100432
 100433
 100434
 100435
 100436
 100437
 100438
 100439
 100440
 100441
 100442
 100443
 100444
 100445
 100446
 100447
 100448
 100449
 100450
 100451
 100452
 100453
 100454
 100455
 100456
 100457
 100458
 100459
 100460
 100461
 100462
 100463
 100464
 100465
 100466
 100467
 100468
 100469
 100470
 100471
 100472
 100473
 100474
 100475
 100476
 100477
 100478
 100479
 100480
 100481
 100482
 100483
 100484
 100485
 100486
 100487
 100488
 100489
 100490
 100491
 100492
 100493
 100494
 100495
 100496
 100497
 100498
 100499
 100500
 100501
 100502
 100503
 100504
 100505
 100506
 100507
 100508
 100509
 100510
 100511
 100512
 100513
 100514
 100515
 100516
 100517
 100518
 100519
 100520
 100521
 100522
 100523
 100524
 100525
 100526
 100527
 100528
 100529
 100530
 100531
 100532
 100533
 100534
 100535
 100536
 100537
 100538
 100539
 100540
 100541
 100542
 100543
 100544
 100545
 100546
 100547
 100548
 100549
 100550
 100551
 100552
 100553
 100554
 100555
 100556
 1

3. 서양악기와 전통악기의 음색과 어법의 차이에서 오는 긴장

이 작품을 들어보면 우리를 결코 쉽게 만들지 않는 섬세한 긴장이 있다. 그 긴장은 실은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긴장이다.

서양악기는 고정되려는 지향성을, 우리악기는 열려지려는 지향성을 갖고 있다. 서양악기는 고정된 음, 고정된 구조를 잘 연주할 수 있도록 발전해왔다. 서양악기가 연주하는 세계는 구조를 향해 있고, 닫힌 완전한 자기 세계를 향해 있다. 그러나 우리 악기는 정반대이다. 우리 소리는 뒤를 항상 열어두어 살려두지 않으면 안 된다. 고정된 음으로 잡아두는 것은 그 음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우리 악기는 열린 세계를 향해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악기가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겠는가? 이 곡의 처음을 보면 바이올린이 먼저 시작을 한다. 매우 비슷한 선율을 해금이 연주한다. 작곡가는 처음부터 서로 다른 두 세계를 보여주려고 의도한 것 같다. 거의 같은 선율인데, 두 악기가 만들어 내는 세계는 전혀 다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곡의 실제 연주를 들어보면 두 진영, 즉 전통악기 연주자와 서양악기 연주자들이 서로 닮은 소리를 내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이다. 서양의 현악기들은 해금소리를 흉내 내려 하고, 해금 연주자는 바이올린처럼 소리 내려 한다. 작곡가가 악보의 어딘가에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연주자들은 함께 양상을 소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서로 비슷한 음색과 음조를 소리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곡의 바이올린 소리는 베토벤 현악사중주에서 들을 수 있는 바이올린 소리가 아닌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낸다. 해금주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곡을 초연한 해금연주가 정수년은 창작 음악 연주라 할지라도 우리 전통 해금의 깽깽이 같은 진한 소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몇 안 되는 진정한 해금 연주자 중의 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창작곡과 퓨전곡이 난무하게 되면서 해금 음조의 평균율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해금이 원래 가지고 있는 맛깔스런 연주기법들이 사라져 가려는 요즘 시대에는 정말 귀한 연주가이기도 하다. 강준일의 국악기를 위한 창작곡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우리 악기의 이런 전통적인 맛깔스러움을 연주자

가 충분히 살릴 수 있게 의식적으로 작곡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 곡의 20-23마디의 해금 연주를 들어보면, 해금 주자가 자기 흥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도록 선율적으로 배려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정수년의 연주라 하더라도 서양 혼악 양상들의 소리에 동화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곡의 부분 부분마다, 어떤 곳에서는 아주 해금적인 소리를 내다가도, 어떤 부분에서는 능청스럽게 서양악기처럼 연주한다. 하나의 음악 안에서 서로 자기가 아닌 것으로 되어가다가도 자기를 지켜가려고도 하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긴장, 이것 역시 이 곡의 묘미 중 하나이다.

서양악기와 우리 악기는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악기가 아니다. 음색이다를 뿐만 아니라 음조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다. 국악기를 작품에 끌어들이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특이한 음향을 음향적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악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버려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 국악기는 한낱 소리나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 국악기의 제작방식, 지금의 이 소리, 이 음조, 이 표현방식에는 우리의 5000년 역사가 담겨있다. 우리 악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이 있고 자기 역사를 갖고 아직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 잘라 버릴 수 있는가? 강준일의 작품에서 우리 악기들은 자신의 고유한 소리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질적인 다른 음악세계가 접촉을 시도했을 때 새로운 생성이 가능하다. 우리적인 것 다 포기하고 서양의 음악적 질서에 편입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한, 창조적인 생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난다고 다 ‘창조적인 생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변용, 변태’가 가능할진 모르지만 그 모두가 ‘창조적인 생성’ 인 것은 아니다. ‘창조적인 생성’은 누구도 막아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다. 강준일의 작품에서 연주자들은 평균율이 만들어내는 세계와 전통음률의 세계 사이를 더듬거린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의 음악은 ‘사이존재’로서의 새로운 음악의 한 영역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이 새로운 음악세계는 아직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 어디에서도 평균율의

세계와 전통 음률의 세계가 이런 방식으로 만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윤이상의 작품에서도 우리의 음악이 서양음악과 직접 만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우리음악의 관념의 세계가 서양음악과 만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서로 다른 음악세계가 음악 그 자체로 만나서 서로를 향해 더듬거리며 만들어내는 음악,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함을 인정하게 된 21세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검색어: 강준일, 해금 협주곡 <사월>, 한국 창작음악분석, 창조적인 생성, 열린 구조와 닫힌 구조

Abstract**Kang Joon-II and his Hae-guem Concerto
<Sa-Wol> (2004)****Lee, Mi-Kyung**

Kang Joon-II as a Korean composer has a unique place in the history of Korean compositions. As many other Korean composers, he applies Korean traditions-from the musical sound to the musical convention and philosophy-for his own style. But the 'Korean tradition' in his music does not mean the conceptual ideal which we should keep in mind, nor is used just as sound material to produce the composer's unique sound. What the Korean tradition of his music means, is our life itself. To him, Korean tradition is not the old one which belongs to the past, but is our life, which is mixed with the past and the present, Korean and non-Korean styles. His music reflect that one.

Since 2000, he has tried to write the music for many kinds of ensemble composed with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and western instruments. <Sa-Wol (Longing for the Moon)> for Hae-guem (a korean string instrument) and western string ensemble (2004) also belongs to this series. In this piece, there is the tension between two music-worlds. Korean music is inclined to be open-ended. The Korean music piece is not structured as well as the western, so it does not exist as the complete work itself. To Korean, the well-structured and close-ended work is a dead artwork, not living. The Korean instruments have developed to be adjusted to that perspective. But western instruments are different. They have developed to be aimed at sounding more accurate pitch and rhythm, because the evolution of western

music was headed for fixed structured artwork. Each of both instrumental groups has its own technique and convention. The composer, Kang doesn't try to reconcile the two different worlds. He just shows the difference of both worlds and let them to be resembling each other. Hae-guem plays sometimes the typical Korean melodic line, but sometimes tries to form the structured sound-contour with western ensemble. The western strings sound sometimes like Hae-guem's tone-color and tune. The further the music flows, the more naturally both sound-worlds get together. That flow, which is unfolded by two different worlds, sometimes struggling and sometimes assimilating, makes his music unique. 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se how that feature reveals itself in Kang's music <Sa-Wol>.

Keywords: Kang Joon-Il, <Sa-wol(Longing for the moon)>, Hae-guem Concerto, analysis of korean modern composition, creative generation

이미경 서울대학교 작곡과 이론 전공 졸업, 동 대학원 음악학 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예술대학 음악학 박사. 현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번역서로 『음악적 아름다움에 대하여』, 논문으로 「한국음악과 철학이 윤이상 음악에 미친 영향」, 「한슬릭 음악미학의 음악미학사적 의미」, 「최근에 일고 있는 음악영재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제안」 등.